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정 미 실·강 혜 원*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The Study of Normative Influence on Clothing Conformity

Misil Chung · Hewon Kah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duk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

(1995. 9. 1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influence on clothing conformity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fashion interest, and clothing importance.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756 subjects assigned to eight groups according to sex, age and residence.

In this study normative influence on clothing conformity, fashion interest, and clothing importance were measured by 20 Likert type questions adopted from previous research or developed for this study. Authoritarian personality was measured by Min's 35 Likert type ques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d correl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1) authoritarian personality, fashion interest, and clothing import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normative influence on clothing conformity. Among these, fashion interest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2) Normative influence on clothing conformity varied by sex and age: that is, females conformed more than males, and younger sample conformed more than older sample.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집단에 속해있고, 이 소속감을 나타내는 가장 손쉬운 수단의 하나가 의복이다. 그러므로 특정집단의 규범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의복의 동조성은 인간의 기본욕구인 소속의 욕구를 만족시켜 안정감을 준다.

현재까지 의복의 동조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격특성, 자아개념, 직업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준거진

단에 대한 규범적 영향을 밝히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의복의 착용이나 구매에서 정보원의 영향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규범적 영향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의 동조성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두 가지의 영향에 의한 동조성은 내재되어 있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조행위가 나타나는 보다 명확한 심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고 의복의 동조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의 동조성 연구에

촛점을 맞추었고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자기자신이 소속하는 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름으로써 집단에서 승인되고 받아들여지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과 권위주의적 성격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2)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과 유행관심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3)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과 의복중요성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4)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대한 배경변인 (성별, 연령, 지역)의 차이를 밝힌다.

의복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성격변인들 중 권위주의적 성격을 선택한 이유는, 동조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동조성과 권위주의적 성격간에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므로, 의복에 있어서도 권위주의적 성격과 의복의 규범을 따르는 동조성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유행관심과 의복 중요성은 의복 동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복행동 변인이다. 유행은 일종의 집합적인 동조현상이기 때문에 소속집단의 의복규범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의복을 중요시할 것이므로, 이 세가지 의복행동변인은 서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Deutsch 등¹⁾은 규범적·사회적 영향에 의한 동조는 사회적 인정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대(규범)에 부응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이미지와 결과에 대한 관심에서 동기화한다고 하였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의 동조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Takahashi 등²⁾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춘기 소녀들이 그들 자신이나 친구들이 준거집단의 의복규범에 대한 동조자라고 느꼈다. Williams 등³⁾에 의하면 청년문화는 동료집단의 영향이 강하여, 이 동료집단 안에는 개성이 집단규범에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동조의 현상을 강하게 나타낸다.

정미실⁴⁾, 박광희⁵⁾, 이주현⁶⁾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서술문의 설문을 사용한 의복의 동조성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현이 의복의 동조성 측정방법을 달리하여 유행집계(fashion counting)에 기초한 의복 슬라이드를 제시했을 때 및 특정상황을 제시하여 의복의 동조성을 측정한 결과, 의복의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동조성 문항과 상황에 따른 동조성 문항을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2. 의복 동조성과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란 권력과 위세를 지닌 대상에 의지해서 사고, 태도, 행위를 형성하는 성격특성이다. 또한 인간이 전체속의 구성원으로서 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유교문화의 영향하에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특징적인 사회적 성격이다⁷⁾.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는 원인은 이들이 갖는 모호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특성에 기인하여, 집단내에 권위를 지녔다고 느껴진 대상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⁸⁾.

Aiken⁹⁾의 연구에서 의복 동조성이 높은 여대생은 양심적이고, 도덕적, 전통적이며 순종하기 쉬운 성격으로 나타났다.

강경자¹⁰⁾의 연구에서는 혁가족보다 대가족형태에 속한 사람이 의복의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와 동조사이의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대가족의 구성원들은 엄격하고 관습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타인의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집단규범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의복의 동조성과 권위주의적 성격간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의복 동조성과 유행관심 및 의복 중요성

유행이란 어느 특정시기 및 지역에서 어떤 집단이 바이들이고 추종하는 의복스타일의 연속적 변화과정을 말한다¹¹⁾. 또한 유행은 익명의 다수가 요구하는 대중규범(mass norm)에 개인이 따로도록 강요받는 집합행동의 한 형태이다¹²⁾. 유행관심이란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미숙¹³⁾, 김병미¹⁴⁾에 의하면 유행관심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이영선¹⁵⁾은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행을 중요시한다고 하였으며, 고

예란¹⁶⁾에 의하면 성인 남자들의 유행관심은 2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에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 여대생은 대전 여대생보다 새로운 유행스타일을 먼저 착용하였고, 유행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충고나 자료를 주었으나, 동료집단과 비슷하게 옷을 입거나 그 집단의 의복 유행스타일을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¹⁷⁾.

의복 중요성은 사회생활에서 의복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인상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첫 인상을 형성하는데 의복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복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된다. 이경희 등¹⁸⁾에 의하면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의복을 더 중요시하였고, 여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부산이 경남지역보다 의복의 중요성이 높았고, 남자는 지역간에 차이가 없었다.

강혜원¹⁹⁾, 이희남²⁰⁾, Jenkins 등²¹⁾의 연구에서 유행관심과 의복의 동조성간에는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고, 의복 중요성과 의복의 동조성 간에도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다(Rabolt 등²²⁾, 정미실⁴⁾, 이경희 등¹⁸⁾).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가설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권위주의적 성격, 유행관심 및 의복중요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이고 부가적 관심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권위주의적 성격, 유행관심 및 의복중요성의 차이이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예비측정도구를 선정한 후 2차례의 예비 조사를 거쳐 완성되었다.

예비측정도구는 모두 4 가지로서, 의복행동변인 3 가지(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유행관심, 의복 중요성)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일관성있게 신뢰도 계수가 높았던 문항을 선정하였고, 성격변인은 민경환²³⁾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35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여대생 158 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복 동조성에서 문항들

의 표현이 유사한 것이 반복됨으로써 피험자들에게 지루하고 연구자의 의도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선택한 의복 동조성 문항 수를 줄이고 다른 형태의 문항(구체적인 상황을 제시)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니섹스 의복에 동조하는 정도, 공식적인 상황(결혼식, 동창회) 및 비공식적인 상황(수련회, 국장)에서 동조하는 정도의 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예로 유니섹스 의복에 동조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대학생 정양은 캠퍼스의 유행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교문에서 학생들의 옷차림을 조사했다. 그 결과 캠퍼스의 유행은 남자의 옷은 여자처럼, 여자의 옷은 남자처럼 되어가는 유니섹스 경향이 뚜렷했다. 당신도 이러한 유니섹스 경향을 따르겠습니까?' ① 결코 따르지 않는다 ② 아마 따르지 않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아마 따를 것이다 ⑤ 꼭 따른다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도 남들과 다르게 옷을 입었을 때 '조상대상자 자신의 경우라면'으로 가정하게 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예비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여대생 60 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상황에 따른 의복 동조성 문항은 의생활 분야의 전문가(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교수 및 박사과정 학생)로 구성된 판단 집단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최종 측정도구의 구성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10 문항(일반적 태도에 대한 5 문항과 상황에 따른 동조성 5 문항)이었고 유행관심 및 의복 중요성 각각 5 문항, 권위주의적 성격 35 문항이었다. 의복 및 성격변인의 각 문항은 모두 5 단계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척도에 비하여 신뢰성이 높고, 태도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Likert 척도는 각 변인에 사용된 문항이 동일한 태도 차원의 직선적 함수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각 변인에 사용된 문항들의 점수를 합해서 그 변인에 대한 태도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각 변인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의 경우 10~50 점, 유행관심 및 의복중요성은 5~25 점, 권위주의적 성격은 35~17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종 측정도구를 사용한 본 조사의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3. 조사대상

자기보고(self-report) 형식의 설문지법을 사용한 조사연구였으므로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유행인지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의류학비전공자를 선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990년 5월초부터 6월말 사이에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으며 장소는 20대 남녀 대학생은 경주 2개교, 서울 4개교에서, 30대 남자는 회사, 은행, 학교에서, 여자는 아파트, 동창회, 자모회 등에서였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변 인	신뢰도 계수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0.56
유행관심	0.79
의복 중요성	0.59
권위주의적 성격	0.84

조사대상자는 <표 2>와 같이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분류된 8집단의 756명이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설의 검증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은 권위주의적 성격, 유행관심 및 의복 중요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표 3>와 같이 권위주의적 성격, 유행관심, 의복 중요성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권위주의적 성격, 유행 관심, 의복중요성, 성별, 연령, 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식에는 유의적인 설명력을 갖는 변수만을 포함시켰다.

<표 4>와 같이 유행관심이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권위주의적 성격, 연령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 3 가지 변인

<표 2> 조사대상자 수

연령 성별	서 울(n=362)		경 주(n=394)		전 체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20 대	87(11.5%)	91(12.0%)	94(12.5%)	106(14.0%)	378(50.0%)
30 대	91(12.0%)	93(12.5%)	95(12.5%)	99(13.0%)	378(50.0%)
전 체	178(23.5%)	184(24.5%)	189(25.0%)	205(27.0%)	756(100%)

<표 3>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관련변인 의복동조성	성 별		연 령		지 역	
	남자 (n=367)	여자 (n=389)	20 대 (n=378)	30 대 (n=378)	서울 (n=362)	경주 (n=394)
권위주의적 성격	0.26***	0.29***	0.26***	0.31***	0.30***	0.24***
유행관심	0.39***	0.32***	0.33***	0.41***	0.36***	0.37***
의복 중요성	0.23***	0.17***	0.15**	0.26***	0.23***	0.19***

** p<.01 *** p<.001

<표 4>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과 독립변인간의 회귀분석

변량원 변인	Simple R	Multiple R	R ²	R ² Change	S.S.	D.F.	M.S.	F Ratio
유행관심	0.37	0.37	0.13	0.13***	1944.42	1	1944.42	111.72***
권위주의	0.27	0.42	0.18	0.04***	2577.54	2	1288.77	77.89***
연령	0.09	0.44	0.20	0.02***	2829.00	3	943.00	58.15***
성별	0.10	0.44	0.20	0.00	2855.67	4	713.92	44.06***
의복중요성	0.21	0.45	0.20	0.00	2863.80	5	572.76	35.33***
지역	0.04	0.45	0.20	0.00	2867.09	6	477.85	29.44***

*** p<.001

의 설명력은 20%였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대하여 유행관심, 권위주의적 성격 다음으로 높은 단순상관계수를 가진 의복중요성의 경우, R² 변화의 값이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의복중요성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직접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기 보다는 유행관심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회귀식 :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 14.30 + 0.43(\text{유행관심}) + 0.08(\text{권위주의적 성격}) + 1.20(\text{연령})$$

(3 가지 변인의 설명력은 20%)

이상의 결과로써,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권위주의적 성격, 유행관심 및 의복중요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의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권위주의적 성격과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의 동조성간에는 유의적인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권위적인 사람이 소속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은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이 높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어 동조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권위주의적 성격 구성요소의 하나가 전통주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과 규범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의복에서도 집단 규범을 따르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한국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연령, 성별, 지위등과 관계된 권위이고, 권력의 소유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

이 있으며, 한국인의 전통적 도덕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사회구성원의 인간관계를 상하의 신분질서로 규정한 규범이므로 한국인은 특히 권위주의적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행관심과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유행관심이 높은 사람이 더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나타내고, 유행이 대중의 규범을 따르는 집합행동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유행은 특정그룹에 동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복중요성과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도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복규범을 더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복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남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므로, 규범적 영향에 의한 동조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는 욕망에 의해서 소속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성격변인, 의복행동변인, 배경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변인은 유행관심이었고, 그 다음은 권위주의적 성격, 연령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관심이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권위주의적 성격이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유행관심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과 유행관심이 같은 의복행동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권위주의적 성격도 상당히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의복중요성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유행관심이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일 먼저 회귀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행관심과 의복중요성간의 상관계수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과 유행관심 및 의복중요성간의 상관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기인한다.

2.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의 분석

1)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을 동조성의 일반적 태도 및 상황에 따른 동조로 구분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및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만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문항별 분석은 남녀만 비교하였다. <표 5>에서 보면 동조성의 일반적 태도 5 문항 중 2 문항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동조성이 의미있게 높았고, 또한 상황에 따른 동조성은 <표 6>과 같이 5 문항 중 4 문항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의복 동조성이 의미있게 높았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10 문항은 <표 7>과 같이 3 월 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20 대가 30 대보다 높았다.

여자가 남자보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자가 유행, 규범등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며, 유행과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로 보아 유행에 보다 관심이 있는 여자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순구 등²⁴⁾, 이경희 등¹⁸⁾의 연구

<표 5>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문항에 대한 성별의 차이 : 일반적 태도

문항 내용	성 별		남 자		여 자		T 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친구 의복에의 동조	2.29	0.98	2.17	0.90			1.85
의복보양에 대한 동조	3.26	0.94	3.12	0.98			2.02*
타인의복에 대한 동조	3.06	1.02	2.98	0.94			1.09
소속감으로서의 의복동조	2.88	1.03	2.75	1.08			1.72
안정감을 위한 의복동조	3.25	0.93	3.10	0.98			2.16*
전 체	14.67	2.94	14.08	3.07			2.69**

* p<.05 ** p<.01

<표 6>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문항에 대한 성별의 차이 : 상황적 동조

문항 내용	성 별		남 자		여 자		T 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동조	1.89	1.01	2.52	1.06			-8.43***
공식적 상황에서의 동조(결혼식)	3.42	1.21	3.71	1.10			-3.51***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동조(수련회)	4.04	0.87	4.14	0.80			-1.70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동조(국장)	3.11	1.10	3.29	1.13			-2.24*
공식적 상황에서의 동조(동창회)	2.12	0.96	2.41	0.97			-4.10***
전 체	14.57	2.76	16.07	2.47			-7.91***

* p<.05 *** p<.001

<표 7>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대한 성별·연령·지역의 차이

변량원 변인	S.S.	D.F.	M.S.	F
성별(S)	138.64	1	138.64	7.07**
연령(A)	110.06	1	110.06	5.62*
지역(D)	21.52	1	21.52	1.10
S * A	106.22	1	106.22	5.42*
S * D	59.99	1	59.99	3.06
A * D	7.35	1	7.35	0.38
S * A * D	48.04	1	48.04	2.45

* p < .05 ** p < .01

<표 8>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성별·연령·지역의 차이

변량원 변인	S.S.	D.F.	M.S.	F
성별(S)	111.02	1	111.02	0.61
연령(A)	3363.52	1	3363.52	18.62***
지역(D)	1712.29	1	1712.29	9.48**
S * A	1365.79	1	1365.79	7.56**
S * D	2.04	1	2.04	0.01
A * D	70.77	1	70.77	0.39
S * A * D	194.64	1	194.64	1.08

** p < .01 *** p < .001

<표 9> 유행관심에 대한 성별·연령·지역의 차이

변량원 변인	S.S.	D.F.	M.S.	F
성별(S)	303.81	1	303.81	26.60**
연령(A)	9.65	1	9.65	0.84
지역(D)	56.33	1	56.33	4.93*
S * A	73.98	1	73.98	6.48*
S * D	0.01	1	0.01	0.00
A * D	40.67	1	40.67	3.56
S * A * D	4.06	1	4.06	0.36

* p < .05 ** p < .01

와 일치하나, 여러 선행연구(양승진²⁵⁾, 강혜원¹⁹⁾, Hambleton 등²⁶⁾, Horn 등¹²⁾)에서 남자의 의복 동조성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불일치한다. 그러므로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한편, 본연구에서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서 일반적 태도 5문항중 2문항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상황에 따른 동조성 5문항중 4문항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의 의복을 인품과 체면,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동조성 문항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의복 동조성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연령에 있어 20대가 30대보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동료집단의 영향이 강하고, 동조하는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년기는 그들의 그룹에 동조하기 위하여 유행을 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남자는 30대가, 여자는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표집한 30대 남자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여자보다 소속집단 즉, 직장에서의 의복규범을 더 따를 것으로 해석된다. 20대는 대학생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대생들이 남자 대학생보다 의복에 더 신경쓰며 유행에 민감하므로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2)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의 관련변인

권위주의적 성격은 <표 8>과 같이 3원 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연령 및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30대가 20대보다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았고, 경주 지역이 서울보다 더 권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20대는 남자가, 30대는 여자가 더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았다.

유행관심은 <표 9>와 같이 3원 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성별 및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여자가 남자보다, 경주 지역이 서울보다 높았다. 또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남자는 20대가, 여자는 30대가 유행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의복중요성은 <표 10>과 같이 3원 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여자

<표 10> 의복 중요성에 대한 성별·연령·지역의 차이

변인	변량원	S.S.	D.F.	M.S.	F
성별(S)		128.45	1	128.45	14.95***
연령(A)		32.37	1	32.37	3.77
지역(D)		20.79	1	20.79	2.42
S*A		0.02	1	0.02	0.00
S*D		0.12	1	0.12	0.01
A*D		112.07	1	112.07	13.05***
S*A*D		0.01	1	0.01	0.00

*** p<.001

가 남자보다 높았다. 또한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서울은 30대가, 경주는 20대가 의복을 더 중요시하였다.

권위주의적 성격은 연령 및 지역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30대가 20대보다 더 권위주의적이었고,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사람보다 권위주의적으로 나타났다. 경주가 서울보다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권위주의자의 특성의 하나이므로, 경주의 경우, 인구이동이 별로없는 정적인 도시이고, 또한 문화유적이 많은 천년고도(千年古都)의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권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을 비교한 Kagitci-basi²⁷⁾의 연구에서 터어키인이 미국인보다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터어키에 내재되어 있는 강한 사회적 규범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 견해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서울과 경주지역간의 차이로 볼 때, 우리 나라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유교문화의 영향하에 있고, 또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경환²⁸⁾의 연구에서 편견에 빠지기 쉬운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수집단 즉 호남인, 하류 계층,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졌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문화간 비교연구를 실시한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30 대 연령총이 20 대보다 권위적인 것은 30 대

후반의 연령총은 남자의 경우 직장인, 여자는 주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즉 남자는 직장안에서의 수직적인 체계나 서열, 회사에 대한 충성이나 복종 등을 경험하게 되고, 여자는 결혼으로 인한 제약, 윗어른을 섬기는 것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이고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유행관심은 성별 및 지역에 따라서, 의복중요성은 성별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유행에 관심이 많고 의복을 중요시하였으며, 경주가 서울보다 유행관심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 유행에 관심이 높고 의복을 중요시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를 더 의식하고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행에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을 중요시하였다는 이경희 등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유행관심은 성별과 연령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남자는 20대가, 여자는 30대가 유행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남자중에서 다른 연령총보다 20대에서 유행관심이 높았다는 고애란의 연구를 지지한다. 한편, 30 대 후반의 남자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직장인으로 확고히 자리가 잡혔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일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유행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복중요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지역과 연령에서 나타났다. 즉 서울은 30대가, 경주는 20대가 의복을 더 중요시하였다. 이는 서울 30 대의 경우, 대도시에서 생활하므로 백화점이나 대규모 의류판매점에 전시된 의복을 쉽게 볼 수 있고, 의복에 대한 정보에 접할 기회가 더 빈번하며,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의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의복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 대하여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목적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과 관련변인(권위주의적 성격, 유행관심, 의복중요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성별, 연령, 지역이 이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피험자는 성별(남, 여), 연령(20 대, 30 대), 지역(서

울, 경주)에 따른 8집단의 756명이었다.

변인은 3가지 의복행동변인과 1가지 성격변인이었으며, 각 변인의 측정도구는 설문문항으로서, 설문내용은 사전연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의복행동변인의 측정도구 중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일반적 태도에 대한 5문항과 상황에 따른 동조성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유행관심 및 의복 중요성은 각각 5문항씩이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선택하거나 본 연구에서 작성하였다. 또한 권위주의적 성격의 측정도구는 민경환이 개발한 35문항이었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은 Pearson 적률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변량분석에 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는 성별,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권위주의적인 성격, 유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의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소속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고 있었다. 또한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관련변인은 유행 관심이었고, 그 다음은 권위주의적 성격이었다.

둘째,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여자가 남자보다, 20대가 30대보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남자는 30대가, 여자는 20대가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이 더 높았다.

셋째,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을 구성한 하위변인별로 볼 때 의복 동조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동조적이었고, 한편 상황에 따른 동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다. 이로써 남자는 여자보다 일반적인 의복규범을 더 따르고 있었고, 특정한 상황에서 의복규범을 더 중요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1) Deutsch, M. and Gerard, H.B.,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1955)
- 2) Takahashi, C.L. and Newton, A., A Perception of Clothing Confro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59 (9), 720-723, (1969)
- 3) Williams, M.C. and Eicher, J.B., Teen-Ager's Appearance on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58, 457-461, (1966)
- 4)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5) 박광희,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6) 이주현, 남자 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7) 오세철, 한국인의 사회심리, 박영사, (1988)
- 8) Rokeach, M., Generalized Mental Rigidity as a Factor in Ethnocentris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3, 259-278, (1948)
- 9) Aiken, L.R., The Relationship of Dress to Selected Measures of Personality in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 119-128, (1963)
- 10) 강경자, 성인여성의 자아실현도가 의복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7(3), 1-11, (1989)
- 11)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s*, N.Y.: The Macmillan Co., (1972)
- 12) Horn, M.J. and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13) 원미숙,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4)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29-45, (1975)
- 15) 이영선, 자유-보수주의적 태도와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1), 69-74, (1984)
- 16) 고애란, 성인남자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 행동과의 상관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1), 1-10, (1987)
- 17) 김정호, 진민자, 패션 리더쉽에 관한 연구(제2보) -서울과 대전 여대생의 패션 리더쉽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1(2), 1-6, (1983)
- 18) 이경희, 김준구, 김영한, 의복에 대한 태도와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33-42, (1988)
- 19)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형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 (1974)
- 20) 이희남, 남자 대학생의 성격 특성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1), 1-11, (1984)
- 21) Jenkins, M.C. and Dickey, L.E., Consumer Types Based on Evaluative Criteria Underlying Clothing Deci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50-162, (1976)

- 22) Rabolt, N.J. and Drake, M.F., Reference Person Influence on Career Women's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5), 11-19, (1984-85)
- 23) 민경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편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4(2), 146-168, (1989)
- 24) 김준구, 윤학자,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1986)
- 25) 양승진, 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욕구 및 가치의 가치지향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 (1), 27-35, (1986)
- 26) Hambleton, K.B., Rocach, M.E. and Ehle, K.,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s, and Self-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 29-33, (1972)
- 27) Kagitcibasi, C., Social Norms and Authoritarianism: A Turkish-American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444-451, (1970)